



보험중개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

이소양 연구원

- 6월26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중개기관(대리점, 브로커, 방카슈랑스 등)의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강화,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험중개기관의 등록 최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.
 - 최근 중국 보험중개기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형 보험중개기관의 무질서한 경쟁으로 보험사기가 빈발하면서 보험중개기관의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.
 -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중개기관의 등록 최저 자본금은 1,000만 위안에서 5,0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, 주주의 자격은 자동차 관련 기업(생산, 판매, 수리), 은행 및 우체국, 보험회사, 전국 보험중개기관, 종합보험중개그룹으로 제한됨.
 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앞서 2012년 3월부터 지역 보험중개기관의 신규 설립을 금지한 바 있으며, 보험중개기관의 설립 감소가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 21세기경제보(21世紀經濟報) 평론가 리린원(李林文)은 보험중개시장 진입 조건 강화가 보험중개시장의 경쟁도를 떨어뜨리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 간의 제판 분리 추세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.
 - 대형보험중개기관이 소형 보험중개기관을 인수함에 따라 보험중개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, 개인대리점 폐업에 따른 실업 문제도 우려됨.
 - 보험중개기관 등록 최저 자본금 인상으로 우수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퇴사하여 보험중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 간의 제판 분리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(하신평, 신량망, 6/27)